

“시대에 맞는 계율 정립 필요하다”

권기중 교수, 원각불교사상연구회 계율 세미나서 주장



“현실에서 지키지 못한 계를 받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계도 지키지 않는다. 시대에 맞는 승려규범이 필요한 때다.”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흡연 등 현대사회 세태로부터 승려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새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권기중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원각불교사상연구회가 5월 12일 서울 천대종 관문사에서 ‘계율의 성립과 변천’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국불교에 있어 계율의 문제’를 통해 한국불교 현실을 반영한 승려규범 도입을 주장했다.

권 교수가 예로든 규범은 조계종 승려규범의 중심이 된 ‘사분율’이다. 권 교수는 ‘사분율’이 2500년 전 인도서 제정돼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현재 ‘사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반대로 지킬 수 있는 계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며 “수계와 동시에 과계를 가져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며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가 예를 든 불합리한 ‘사분율’의 조항을 살펴보면 돈을 만지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축전보계(畜錢寶戒)와 작보계

(捉寶戒), 땅을 파지 말라는 굴지계(掘地戒)나 일체의 초목을 꺾지 말라는 괴생중계 등이 있다. 또한 임대소변계처럼 스님들이 서서 소변 보는 것조차 금하는 것은 현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 권 교수는 “마약 복용, 흡연, 과도한 사유재산의 소유, 고가의 물품이나 사치에 가까운 의복 착용 등은 수행자의 도리라 보기 어렵다”며 “자동차, 컴퓨터, TV, 휴대전화, 전자계열, E-메일과 인터넷 사용에 관한 새 계율의 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새 시대에 맞는 규범 도입의 예로 탁났한 스님이 제시한 9가지 승규(僧規)를 들었다. 탁났한 스님의 승규는 △비싸고 좋은 차를 소유하지 말 것 △이성과 단둘이 자동차를 타지 말 것 △세속적인 필름, 음악, 전자계열을 소유하지 말 것 △운동경기, 세속적인 영화, 공연을 보지 말 것 △부모, 스승, 친구에 대한 은혜를 부인하지 말 것 △세속적인 소설책을 갖거나 읽지 말 것 △가사와 장삼을 세 벌 이상 지니지 말 것 △주식을 사거나 투자하지 말 것 등을 담고 있다.

권 교수는 “계율을 함부로 고칠 수는 없지만 불합리한 계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문제”라며 “조계종은 천태종의 출제자가 공통 계인 십심계 중심 운영을 참조해 불교정신에 맞는 새 계율 정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12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새 승려규범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불합리한 ‘사분율’ 맹목적 추종 문제 ‘탁났한 9승규’는 새 규범 좋은 예

새 승려규범 도입, 율장 정신 회복

이에 대해 이날 학술대회 첫 번째인 ‘초기교단의 계율과 성립배경’을 발표한 백도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도 새 규범 도입에 대한 입장을 함께 했다.

백 연구원은 “계율은 부단의 규정과 허락으로 성립됐고 포살을 통해 암송된 뒤 명문화됐다”며 “계율의 제정과 알릴 적용과 추가제정 및 개정 시기는 각각 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 연구원은 “계율은 각 부파의 입장을 담아 다른 조목과 내용으로 명문화됐으며 또 범죄결과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 그 내용을 담아 계율을 생성하기도 했다”며 “당시 바라제목을 외우지 못하

는 경우 좌회 하지 않았던 점에서 승가의 율은 외우기 위한 명문조항이 아니라 포살을 위한 방법이었다”고 형식화되는 율장 정신의 회복을 주장했다.

대승불교 계율 시대마다 이해 달라져

신성현 교수(동국대 교수)는 ‘대승보살계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승불교에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계의 이해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초기 대승불교에서 주목되는 계가 바로 10선계인데 초기불교에서는 10선언도라는 윤리덕목에서 시대상황에 따라 계로 받아들여졌다”며 “부파율장의 계율은 출제자가 공감할 수 있는 초기 대승불교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불교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승의 입장에서 해석한 10선계가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용문산 상원사 범종 명예 회복하나

도정만 박사 “제작연대 신라시대로 추정” 1962년 ‘가짜 오명’으로 국보 지정 해제

국보에서 아깝게 해제됐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상원사 범종(해제 당시 국보 367호)이 신라시대 제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은 연구 결과가 나와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5월 15일 경기도 양평 농업박물관서 열린 ‘용문산 상원사 범종 학술발표회’에서 도정만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통과학기술사



용문산 상원사 범종

의 고고학자들은 상원사 범종의 제작 연대와 모조품 여부를 문양이나 당시 상황 등으로 판단했었다. 범종의 남 동위원소 비율이 남한에서 생산된 종 재료와 거의 일치한다. 일본이나 중국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상원사 주지 호산 스님도 “일제시대 이후 상원사 종의 과학적·학술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 상원사 종의 역사적 가치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상원사 범종의 가치 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상원사 범종은 1929년 2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제야의 종’ 타종에 사용됐다. 이후 1939년 11월 17일 보물로, 해방과 함께 국보 36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다 ‘일본이 약탈해 간 뒤 19세기 말 일본서 급조해 다시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돼 1962년 국보에서 지정 해제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열반·깨달음·해탈 개념 논쟁 재고돼야

5월 12일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

주장했다.

“부처님 당시 열반과 깨달음, 해탈은 완전한 최고의 경지를 칭하는 다른 이름이었다. 열반의 완전함에 대한 불완전성의 함의와 변명이 그 이후 불교이론을 더욱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원천이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가 5월 1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반 개념에 대한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조준호 동국대 강사는 이날 첫 발표인 ‘열반개념의 연속과 불연속’에서 “본래 열반과 깨달음, 그리고 해탈은 같은 경지에 대한 다른 이름이었지만 초기불교 전통에서 하나뿐인 열반을 유여·무여열반 같이 둘, 셋 그 이상으로 갈라내며 열반 개념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조 강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격과 위상이 망가진 열반개념이 대승불교에 와서 불완전성이 천명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조 강사는 “깨달음을 열반보다 상위개념으로 위치시키거나 ‘깨달음은 수단, 열반은 목적’, ‘궁극목적은 깨달음이 아닌 열반’이라는 주장 모두 재고돼야 한다”며 “깨달음과 관련된 최근 국내서 제기된 ‘연기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성제라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전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는 연기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관련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정환 금강대 연구원은 “조기불교 기준점에 있어 자의성을 피하지만 이와 관련된 논쟁이 진행되는 만큼 의견 개진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노덕현 기자

“북한 문화재 관리에 남한 지원 필요”

동북아불교미술학 ‘북한의 문화유산’ 논의

국내 최초 북한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학술행사가 열렸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는 5월 12일 명지대 대강당에서 ‘북한의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술사·건축사 분야의 북한 쪽 전문연구자가 전문인 상황에서 국내 미술사학계 소장 연구자들이 북한 미술사·건축 문화유산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제2발표를 진행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발표에서 “북한은 1994년 문화유물 보호법을 제정해 문화유산 보존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많은 역사유적이 피해를 받

았는데 2000년대 전국 사찰에서 문화유산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남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태호 명지대 교수는 금강산 불교유적 중 고려전기 조성된 묘길상과 후기 삼불암을 대표적인 고려시대 문화재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삼불암의 ‘석가문불’ ‘미륵존불’ ‘아미타불’ 명문 및 묘길상 인편에 음각된 문인공양상을 공개하며 “묘길상은 금강산 중심의 거불, 삼불암은 길목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 마에볼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병희 경기도 문화재위원의 ‘묘향산 용주봉의 진신사리탑을 통해 본 구형부도’, 최경현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19세기 북한의 사찰 벽화 연구’ 등도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현실의 관음이 내세의 정토 낱아”

한국정토학회, 관음사상과 신앙의 재조명 세미나

한 마을에 조신 스님이 있었다. 마을의 관음보살에게 그 여인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신 스님은 관음보살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타나 조신 스님은 그 여인과 함께 고향땅에 가서 부부가 된다.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지만 몇 년 동안 가난에 시달리다가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 두 사람이 늙고 병이 들자 헤어지기로 한 순간 조신 스님이 눈을 뜨고 오십 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다. 부부 일때 죽은 아이를 묻은 자리를 파보니 돌미륵(石彌勒)이 나와 서둘러 돌아와 정토사(淨土寺)를 세웠다.

삼국유사 조신전에서 전하는 관음신앙과 정토신앙의 일부다. 한국정토학회(회장 김성태)가 양양 낙산사에서 5월 12일 개최한 15차 학술회의에서는 서울 정토사에게 해 달라고 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신 스님은 관음보살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타나 조신 스님은 그 여인과 함께 고향땅에 가서 부부가 된다.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지만 몇 년 동안 가난에 시달리다가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 두 사람이 늙고 병이 들자 헤어지기로 한 순간 조신 스님이 눈을 뜨고 오십 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다. 부부 일때 죽은 아이를 묻은 자리를 파보니 돌미륵(石彌勒)이 나와 서둘러 돌아와 정토사(淨土寺)를 세웠다.

삼국유사 조신전에서 전하는 관음신앙과 정토신앙의 일부다. 한국정토학회(회장 김성태)가 양양 낙산사에서 5월 12일 개최한 15차 학술회의에서는 서울 정토사에게 해 달라고 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신 스님은 관음보살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타나 조신 스님은 그 여인과 함께 고향땅에 가서 부부가 된다.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지만 몇 년 동안 가난에 시달리다가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 두 사람이 늙고 병이 들자 헤어지기로 한 순간 조신 스님이 눈을 뜨고 오십 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다. 부부 일때 죽은 아이를 묻은 자리를 파보니 돌미륵(石彌勒)이 나와 서둘러 돌아와 정토사(淨土寺)를 세웠다.

관음신앙의 일부다. 한국정토학회(회장 김성태)가 양양 낙산사에서 5월 12일 개최한 15차 학술회의에서는 서울 정토사에게 해 달라고 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신 스님은 관음보살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타나 조신 스님은 그 여인과 함께 고향땅에 가서 부부가 된다.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지만 몇 년 동안 가난에 시달리다가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 두 사람이 늙고 병이 들자 헤어지기로 한 순간 조신 스님이 눈을 뜨고 오십 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다. 부부 일때 죽은 아이를 묻은 자리를 파보니 돌미륵(石彌勒)이 나와 서둘러 돌아와 정토사(淨土寺)를 세웠다.

조 명예교수는 “승려 조신(調信)이 관음기도로 요구하는 바를 달성해 가정을 이루지만 현실생활은 고해의 연속이었다. 이는 당시 관음신앙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아미타불 본원(本願)으로 정토에 왕생해 그 공덕으로 보살도를 수행해 부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 승복일체 · 고급침구 ◆

역사와 전통의 승복점 원창사

대표 서철교 (덕운)합장

대우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50-1번지 TEL:(053)257-8720 / 253-8382 FAX:(053)257-8721 농협:703-02-134031(김술란)

서완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 891-번지 TEL:(051)514-3447(원창사)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010-8442-4444 (상담)

묘목 재배 농장: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